

4부 일생의례

우리 조상들은 일생을 거치면서 겪는 중요한 예식으로 관혼상제를 지내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일생의례 중 혼례, 상례, 제례 때 사용했던 유물을 선보인다. 열쇠패와 진주선은 조선 말기 상류층이 사용했던 예물로써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신부의 혼례복인 활옷은 붉은 색 바탕에 길상무늬가 앞뒤로 수놓여 유려한 장식미를 느낄 수 있다. 상례 때 혼백과 신주 등을 신는 가마인 영여와 제례 때 조상을 위한 그릇인 제기도 함께 전시된다.



영여 靈輿
Funeral Bier
근대



활옷 闋衣
Bride's Wedding Dress
근대



진주선 眞珠扇
Fan for Wedding Ceremony
조선

열쇠패 婚需佩
Key Jewelry
조선



5부 농가의 일상

농가의 일상에서는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었던 농기구를 소개한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생업으로 농기구는 파종경작·수리관개·수확탈곡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대표 농기구로는 한꺼번에 7~8명이 함께 흙을 퍼 나르고 땅을 고르는 가래, 여러 사람이 호흡을 맞춰 물을 길어 올리는 무자위가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품앗이나 두레와 같이 협동의 미덕을 잘 보여준다.



무자위 水車, 水龍
Water Pump
현대



삼태기 畚, 畧籃, 箕
Basket
현대



가래 可乃
Wooden Shovel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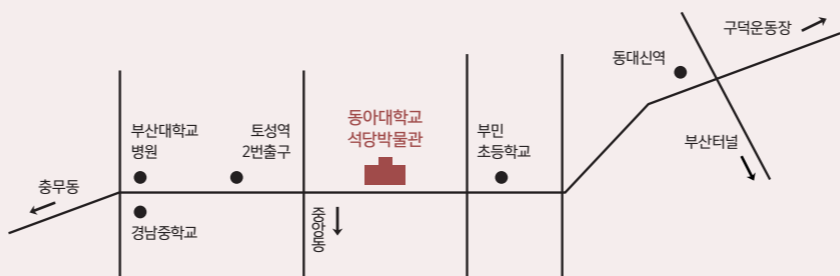


도리깨 連枷
Harvest Tool
현대

전시안내
관람시간 화 ~ 일요일 09:30 ~ 17:00
휴 관 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11월 1일)
관 람 료 무료
관람해설 051-200-8493, 8499(전화예약)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토성역 2번 출구(약 350m 이동)
버 스 15, 16, 40, 70, 81, 123, 126, 161, 190
주 차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지하주차장(유료)

SNS
facebook.com/dongamuseum
instagram.com/dongamuseum
blog.naver.com/dongamuseum



민속 일상의료의 초대

Folklore Artifacts,
Welcome to our daily life

2019 10. 29. TUE — 2020 2. 2. SUN
2층 민속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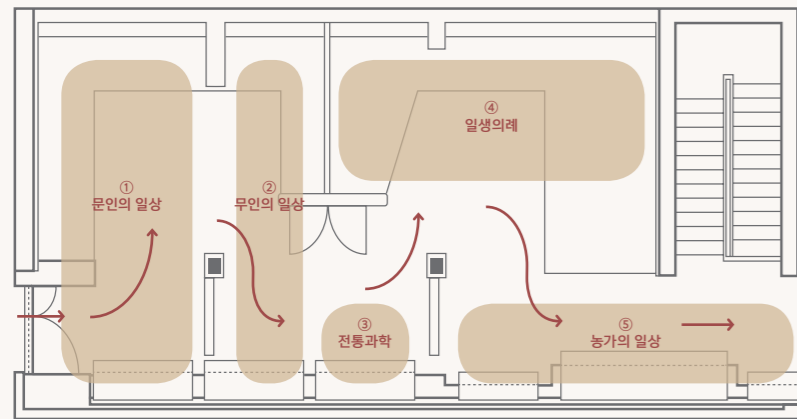
민속 일상으로의 초대

Folklore Artifacts, Welcome to our daily life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에서는 개관 6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민속, 일상으로의 초대”를 마련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민속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 우리의 옛 일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전시 구성은 문인의 일상, 무인의 일상, 전통과학, 일생의례, 농가의 일상 순으로 민속유물 2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 중 해시계는 한양의 북극고도를 기점으로 12간지와 시각 구획선이 과학적 원리로 표현되어 당시 제작기술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진주선과 열쇠패는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 예물로써 화려한 색감에 독특한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밖에 각종 화포, 조총, 도검, 활기구 등 병기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의 지혜가 담긴 민속유물과 옛 세대의 숨결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실 안내도 Guide Map



1부 문인의 일상

문인의 일상에서는 복식부터 모자, 신발, 장신구, 목가구 까지 다양한 민속유물을 선보인다. 유물의 장식은 신분과 개성을 나타내어 문인의 교양과 품위를 보여준다. 조복 일습은 문무백관이 착용한 것으로 정제된 감성과 색채, 특징이 잘 드러난다. 또한 양관과 백립 등 우리 고유의 모자를 한 데 모아 소재, 디자인에 따른 각기 다른 쓰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후수 後綬
Embroidered Scarf
조선



적라의 赤羅衣
Red Official Robe
조선



백립 白笠
Hat for the Period of Mourning
조선



양관 梁冠
Official's Head Dress
조선

2부 무인의 일상

무인의 일상에서는 조선의 군사무기와 군용도구를 소개한다. 군사무기는 보물로 지정된 지자총통보물 제863호와 쌍자총통보물 제599호를 비롯한 여러 화포를 전시하여 지역성과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활과 화살부속구를 통해 당시 공술의 우수성도 체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순라꾼이 야간에 도성을 순찰하는데 사용했던 조족등은 뛰거나 흔들려도 촛불의 끝이 항상 위가 향하도록 제작되어 조상의 슬기가 돋보이는 유물이다.



활집과 화살주머니 弓袋와 矢服
Cases for Bow and Arrow
조선



조족등 照足燈
Hand-carry Lantern
근대



지자총통 地字銃筒
Cannon Launcher
조선 1557년
보물 제863호

3부 전통과학

전통과학 유물은 조상들의 경험과 직관에 기초하여 발명된 것으로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1870년 강윤이 만든 휴대용 지평해시계는 12간지가 과학적 원리로 표현되어 당시 시간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제작기술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유물이다. 각계수리약장은 내부 서랍을 볼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전에 최초로 개방하여 전시한다. 서랍 하나에 주로 두 가지 약재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백편두白扁豆 · 필발華發 · 모려牡蠣 · 파극巴戟 · 계피桂皮 등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해시계 日時計
Sundial
조선 1870년
강윤 제작



각계수리약장 藥櫃
Herbal Medicine Chest
조선 18세기